

“또 올게요~” 가족 사랑 품고 다시 일상으로

광주 송정역·종합버스터미널 귀경행렬 줄이어 영락공원도 참배객 북적...곳곳서 그리움 물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가족과 명절을 보낸 귀경객들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광주송정역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하는 열차에 오르고 있다. /김애리 기자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광주 송정역은 여행용 가방과 배낭, 선물 상자 등을 손에 들고 열차 승강장으로 향하는 귀경객들의 발걸음이 잇따랐다.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명절이었던 탓에 시민들은 반팔, 반바지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열차를 기다렸다. 그 동안에는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오면서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오자 한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항상 건강해야 한다”고 기운을 북돋아 줬다.
바로 옆에서 열차에 타던 손녀를 향해 한 노부부가 “조심해서 올라가라”고 인사하자 “엄마 아빠랑 또 올게요”라는 씩씩한 대답이 돌아왔다.
순식간에 떠나버린 열차를 한참이나 지켜보던 유모(60대)씨는 “5월이나 되

는 연휴가 삼시간에 끝나 아쉽지만, 온 가족이 함께해 만족스러운 추석이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 종합버스터미널도 귀경객과 배웅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한 몇몇은 혹시 취소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무인 매표기 앞에 줄을 섰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시민들은 터미널 내 카페 등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쉬움을 달랬다.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가 도착하자 귀경객들은 몸을 실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했다.
직장이 있는 서울로 간다는 이모(30대)씨는 “간만에 할머니 덕에 와 가족들의 얼굴을 전부 보고 성묘도 다녀왔다”며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아찔하지만, 가족들에게 받은 정과 사랑으로 잘 이겨내 보려 한다”고 웃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세상을 먼저

떠난 가족들을 보러 온 성묘객들도 행렬을 이뤘다.
갓 돌이 지난 자녀를 품에 안은 부인과 함께 영락공원 제2추모관에 들어간 한 청년은 아버지의 불안함 앞에서 “잘 지내셨냐”고 안부를 물었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날, 자라온 과

정, 앞으로의 계획을 담담히 풀어내던 그는 어느 순간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겠다”고 읊조린 뒤 발걸음을 돌렸다.
한여름 같은 땀방울도 그리움 가득한 발걸음을 막진 못했다.
푸른 잔디 위의 자연장 주변은 참배객들이 두고 간 형형색색의 꽃들로 화

사했다. 꽃과 함께 생전 즐겨했던 음식을 가져온 가족들은 간소하게나마 상을 차리며 고인을 기렸다.
차레를 지낸 뒤에는 묘역 주변의 잡초 등을 정리하거나, 눈을 감은 채 다시 한 번 인사하는 것으로 그리움을 표현했다.

3대가 함께 모여 명절을 보냈다는 오모(80대)씨는 “살아있는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 떠나 보낸 가족을 잠시나마 만난 순간 모두 소중한 명절이었다”며 “가족 모두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간 일상에서 건강했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안재영·주성학 기자

추석 연휴 광주·전남 사건·사고 ‘일록’

연쇄추돌·별쏘임·화재 등...손가락 절단 환자 타지역 이송도

추석 연휴 기간 광주·전남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15분께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에서 A(70대)씨가 복부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사망했다.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됐고, 외부 침입 정황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3일 추석을 맞아 요양 병원에서 외출, 가족들이 있는 집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른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1시10분께 북구 유동 사거리 인근 인도에선 B(60대)씨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 치료 이틀째에 숨졌다. 화재 현장에

서 인화물질을 발견한 경찰은 B씨의 사망을 변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추석 당일이었던 17일 오전 9시42분께에는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원덕터널 입구에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다. 사고 차량에는 총 1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귀경길 정체로 인해 차량 간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26분께 광주 광산구 용공동 한 도로변에선 성묘객 C(60)씨가 밭에 쓰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밖에도 지난 13일 순천 한 도로에선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10대가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휴 동안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뱅뱅이’는 없었으나, 지난 18일 오후 1시31

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50대가 90여km 떨어진 전북 한 병원으로 이송돼 사고 2시간이 넘어서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소방 당국은 광주지역 의료 기관 4곳에 먼저 연락했으나, 모두 담당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타지역 이송 결정을 내렸다. /안재영 기자

음주 30대 가로등·자전거보관함 ‘쿵’

추석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41분께 광주 서구 마북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가로등과 자전거 보관함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주성학 기자

“선거법 위반” 허위자백 중용당한 공무원, 군청 상대 승소

법원, 정선적 교통 인정 “영암군청, 2천만원 배상해야”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말단 공무원에게 허위자백을 중용한 사실에 대해 영암군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13부(이민수·김정숙·이상현 부장판사)는 영암군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당시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을 강요·중용해 정선적 고 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은 2021년 군수가 3선에 도전하며 더불어민주당 표창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선거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비서실장, 흥

보과장 등은 직간접적으로 A씨에게 “상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진술하라”고 거짓 자백을 강요·중용하고 자신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결국 선관위 조사에서 군수의 지적을 확보한 것이 모두 혼자 한 일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허위 자백을 털어놓으면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신 군수의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견책 징계를 받았고, 군수는 3선 도전에 실패했다. /안재영 기자

술·수면제 복용 ‘위험운전’ 50대 ‘징역 1년’

술과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

전,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술과 수면제

를 먹은 상태로 나주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울타리와 다른 사람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등 추가 사고를 연이어 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